

지역 소식통

김제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6월 14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체납 고지서와 체납 안내 문자 등을 일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납부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실익 분석 후 공매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에 대해 상시 영치 및 야간 영치를 운영하여 번복환을 영치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 처분 유예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도 지원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투자유치과 백산면 소재 농가 일손 도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투자유치과가 22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백산면 소재 농가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촌 일손돕기는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번기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가를 돕고자 추진됐으며, 해당 농가가 요청한 시기에 맞춰 진행됐다.

투자유치과 직원들은 포도 순제거 작업 등을 통해 농촌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공감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농가주는 "투자유치과 직원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힘을 보태줘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서해영 투자유치과장은 "최근 고령화로 농촌에서 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농촌일손돕기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풍년기원 모내기행사 성료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농협 김제시지부, 원형보전지 활용 모내기행사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농협 김제시지부(지부장 조원석)와 22일 백구면 월봉리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풍년기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와 농협 김제시지부는 혁신밸리 논체험장 조성 및 주민참여 행사를 추진을 위해 지난 2022년 5월 협약을 체결하고 협업사업 일환으로 풍년기원 모내기행사를 추진해 왔다.

이날 풍년기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내기체험 행사에는 정성주 김제시지부(지부장 조원석)와 22일 백구면 월봉리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풍년기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승환 백구농협조합장,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농업인, 부용·난산초 초등학생,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 최초로 준공돼 첨단농업 선도 지역으로 떠오르는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부지 내 물고사리 서

식지를 원형보전지로 조성하고 논체험장으로 활용해 청년농업인, 지역주민, 초등학생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해 오고 있다.

특히 풍년기원제, 백구농악단 공연, 모내기체험 이외에도 스마트팜 견학 및 온실 내 수확 체험 등을 통해 초등학생, 주민에게 다양한 체험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첨단농업 및 청년농의 미래를 이끌어 갈 거점이 될 것"이라며, "청년농이 유입되어 농촌에 활력이 생기고, 농생명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ICT농생명산업을 이끄는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빅데이터센터 4개 시설이 연계·집적화되어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교육 지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온실 임대, 신종종작물 및 ICT기자재 실증·상용화 지원, 빅데이터센터 생육·환경정보 등 수집·분석, 농가지원시스템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농협 김제시지부와 22일 백구면 월봉리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풍년기원 행사'를 개최했다.

유희태 완주군수, 보훈단체 대표와 간담회

보훈정책 공유, 개선점 모색

유희태 완주군수가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보훈단체 대표들을 만나 보훈정책을 공유하고, 현안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21일 유 군수는 완주군 지역의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전우회, 월남참전 유공자회, 상이군경회, 6.25참전 유공자,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등 7개 보훈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및 오찬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의 희생을 기리고 현장 보훈정책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범 보훈단체협의회장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대한 군의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보훈가족들이 고령자로 갈수록 대상이 감소하고 있어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전국 지자체별 차등 지원되고 있는 호국 보훈수당을 현실화하고, 각종 행사시 보훈가족 예우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희태 완주군수가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보훈단체 대표들을 만나 보훈정책을 공유하고, 현안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수용해 나가겠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들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 피부에 와닿는 보훈 가족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완주군은 국가유공자의 예우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 삼봉지구에 보훈회관을 신축 개관해 1일 60여 명의 보훈 회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월 1,650여 명에게 호국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급, 보훈가족 위안행사, 호국 순례사업, 현충시설 보수공사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 무지개가족, 설립 40주년 행사

완주군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25일 기념미사 등 개최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무지개가족이 오는 25일 설립 40주년 기념미사와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2일 완주군에 따르면 무지개가족은 1984년故지정환 신부가 소외되고 의지할 곳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전주시 쌍용아파트에서 보금자리를 만든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옛 성모병원을 거쳐 현재의 소양면 원혜빌라에 자리를 잡았다.

40주년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법인대표 오성기 신부의 주례로 미사가 시작되고, 자립해 퇴소한 장애인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후 무지개가족 전주교구장 김선태(사도요한) 주교의 이름으로 박남

숙(루시아)씨에게 공로패가 수여될 예정이다.기념식에서는 무지개가족 책임자인 장상원(안드레아) 신부의 내빈 소개와 인사말에 이어 천주교 전주교구 김선태 주교, 유희태 완주군수의 축사로 이어진다.

무지개가족은 정부의 정책 기조인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시설로 기존 자립 퇴소를 했던 장애인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무지개가족 장상원 책임신부는 "무지개 40년 지기 친구들과 동반자들을 초대한다"며 "무지개가족의 가능성과 열정에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치매환자 가족 '일상의 회복' 심화 과정 운영

김제시(시장 정성주) 치매안심센터는 해리암 가족교실 기본과정을 기반으로 '일상의 회복' 심화과정을 22일 오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앞서 치매가족 및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해리암 가족교실을 지난 3월부터 1주 1회 8회기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일상의 회복' 프로그램은 치매환자 가족들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해 자신의 건강과 일상을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중앙치매센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며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일단 멈추기, △차분히 보기, △고스란히 깨닫기, △그대로 보듬기라는 주제로 총 4회 운영될 예정이다. 또 프로그램이 끝난 후 만족도 조사와 3가지 평가도구(한글판 스트레스 자가척도, 스트레스 반응척도의 신체 스트레스 반응, 가족의 우울)를 활용해 평가를 진행해 프로그램의 효과도 비교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들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습관화된 긴장에서 벗어나 자신과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2024년 벼농사 드론직과 연사회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벼농사 육묘에서 이앙 단계까지의 농작업 노동력을 최대로 절감 할 수 있는 드론직과 연사회를 22일 시범농가 및 지역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드론직과는 파종에서 이앙 단계까지를 생략하고 드론을 활용해 볍씨를 논에 직접 뿌리는 새로운 농법으로 이앙 전 노동시간이 기계이앙에 비해 80% 이상 줄어 노동력 및 생산비가 절감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높은 재배 기술이다.

드론직과 핵심 기술로는 잡초생머 발생이 없고 드론 운전이 지장이 없는 논으로 쟁매질 시 정밀 균평작업을 실시해 입모율을 높여야 한다.

또, 볍씨는 1mm로 최아시켜 물기를 잘 제거한 후 사용하며, 파종량은 3~4kg/10a로 최소화하고 수심은



2~3cm, 바람이 없는 날로 해야 한다. 파종 후 약 10일까지는 볍씨가 마르지 않을 정도의 수분만 유지하고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며 중기 제조제 처리는 파종 후 12~15일 정도 수심 5cm 정도의 답수상태를 5일 정도 유지하여 잡초 방제를 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